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속복교회



2024년 10월 20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우린 쉬지 않으리 날마다 오직 예수 뿐이네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Behold
기도		강성경 자매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3장 1-23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성숙된 그리스도인	우정석 목사
헌금찬송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우정석 목사
축도		우정석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John Choi 장로님, Christine Choi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친구초청 고기파티 | 10월 26일 (토) 5시 청년부 & 청장년부 고기파티를 합니다. 함께할 친구들과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 새축복 바자회 | 11월 9일 (토) 교회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도네이션 하고싶은 물품 (의류, 가방, 가구, 전자제품 등)이 있으시면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세례자 | 올해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최동현 목사 또는 셀장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의 달 |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해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달동안 감사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0/20	강성경	럽셀
10/27	김하진	예수파셀
11/03	정성원	IE종아셀
11/10	송윤숙	럽셀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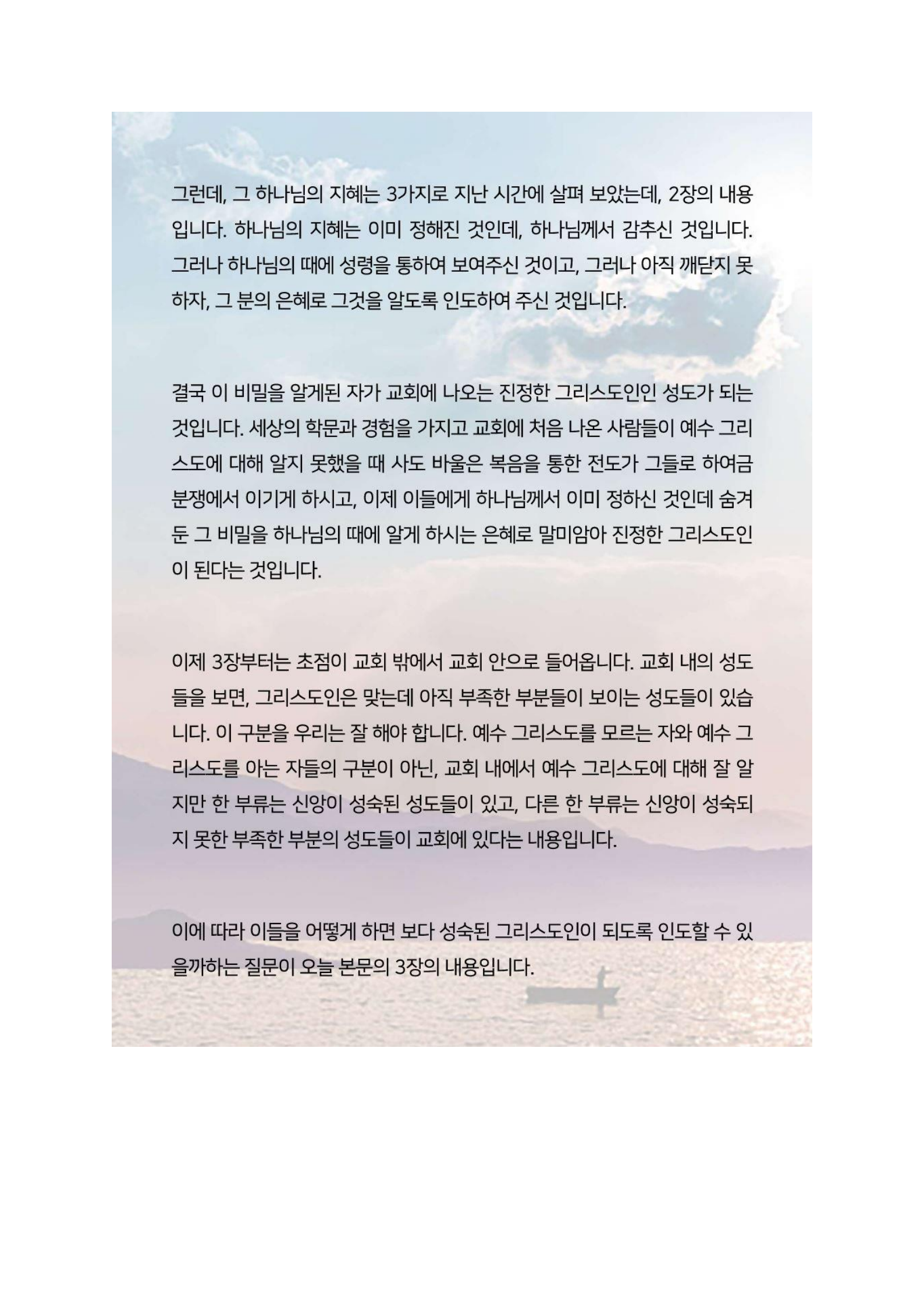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셸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셸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셸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1020 주일청년 설교요약 | 고린도전서 3장 1-23절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성숙된 그리스도인

1장에서는 고린도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칭찬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의 지식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 내 분쟁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지식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당시 철학자들의 자기 신분과 계급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당파가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에 따른 사명을 수행한다고 1장을 이어갑니다. 그들을 바로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3가지로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는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자, 그 분의 은혜로 그것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비밀을 알게된 자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한 전도가 그들로 하여금 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인데 숨겨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초점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구분이 아닌,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만 한 부류는 신앙이 성숙된 성도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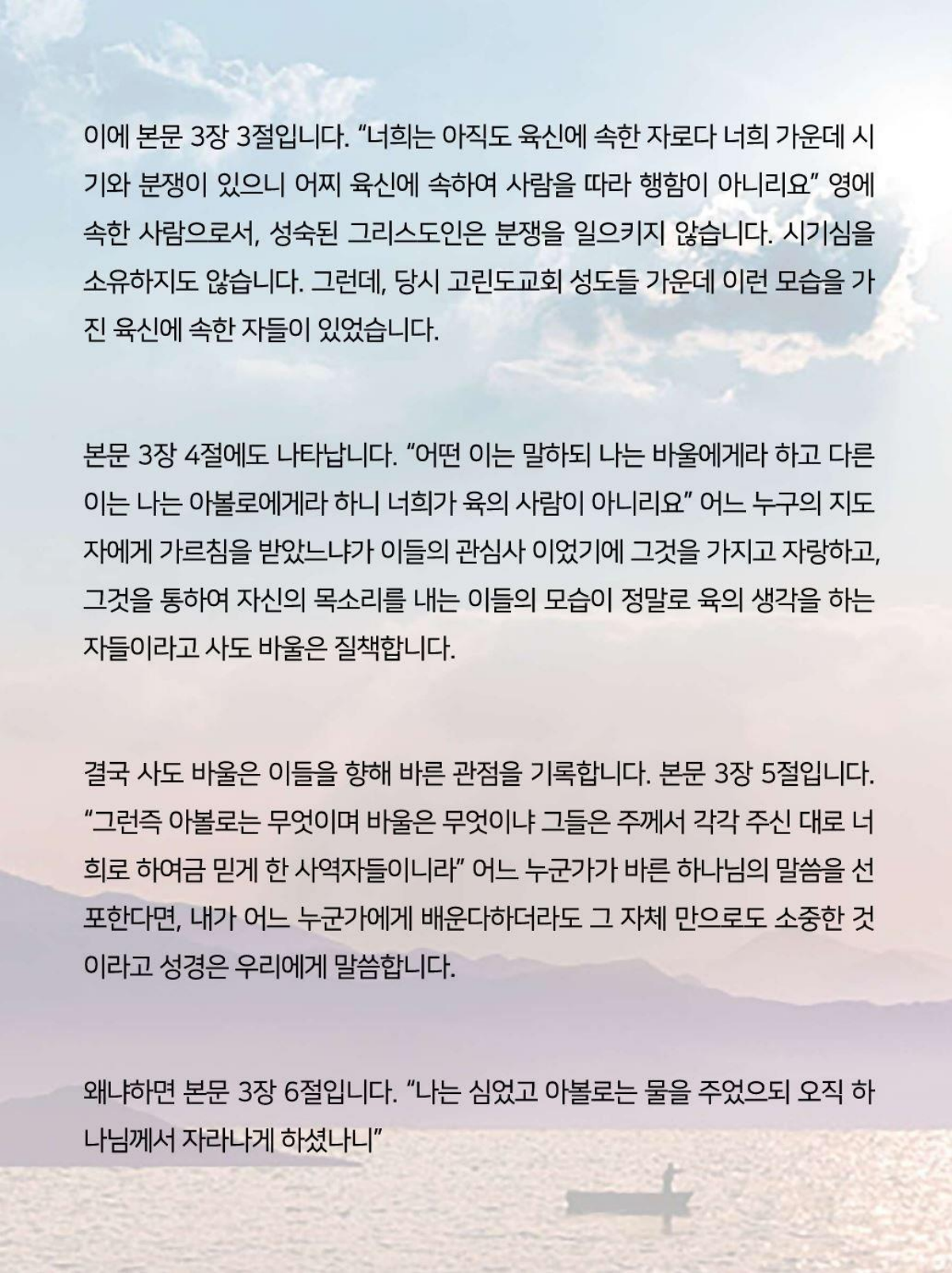
나눔 질문

Q. 나는 그리스도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정확하게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나누어 봅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본문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가운데 답답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어린 아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가운데 단단한 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준다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먹는다 하더라도 건강에 유익하다고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성장에 따른 음식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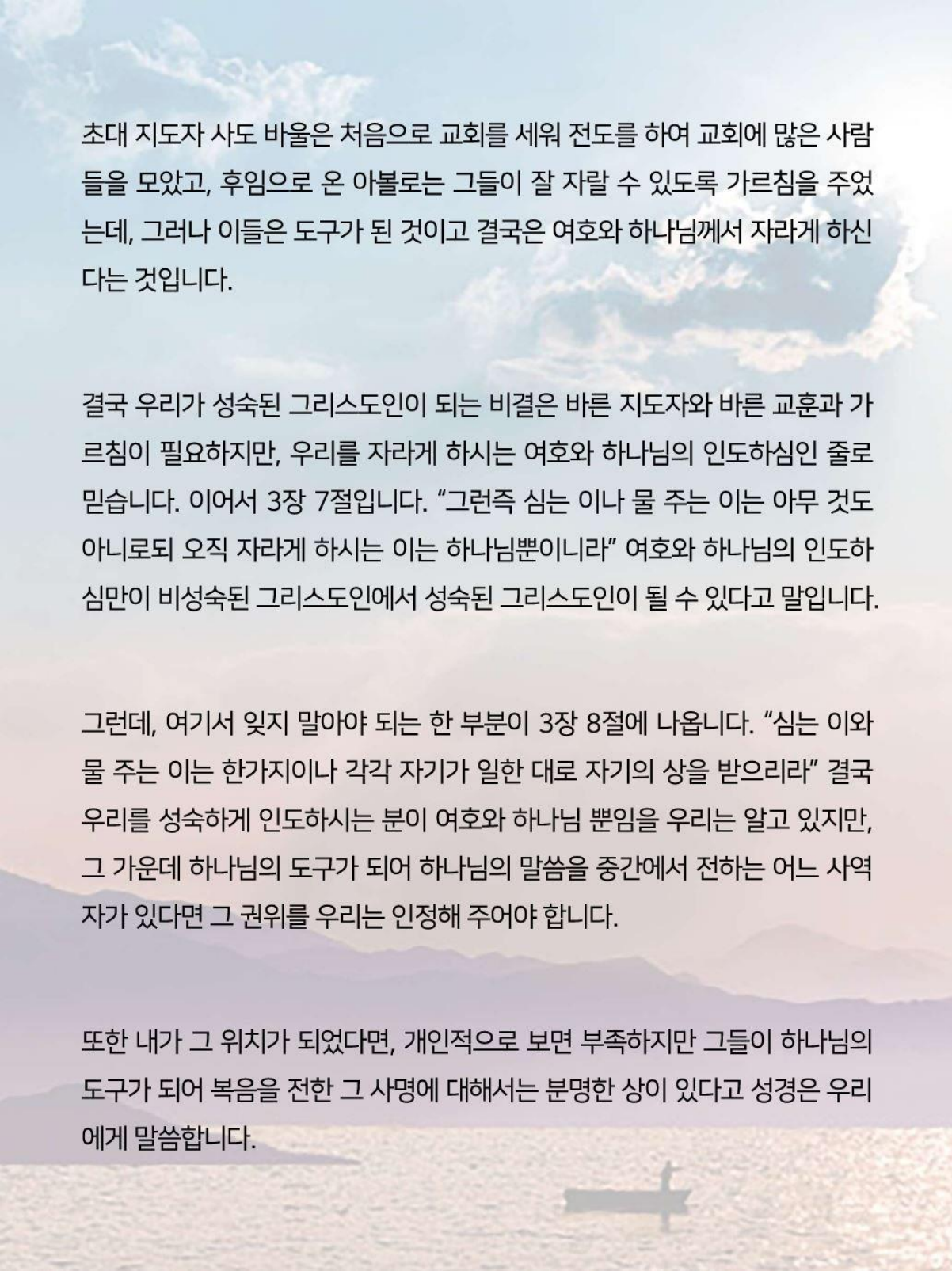


이에 본문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장 4절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어느 누구의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이들의 관심사이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로 육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바른 관점을 기록합니다. 본문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어느 누군가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배운다하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도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초대 지도자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 전도를 하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후임으로 온 아볼로는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도구가 된 것이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바른 지도자와 바른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비성숙된 그리스도인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한 부분이 3장 8절에 나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전하는 어느 사역자가 있다면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 위치가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한 그 사명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각자는 감히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지만, 그 분은 우리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급으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 대우를 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분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눔 질문

Q.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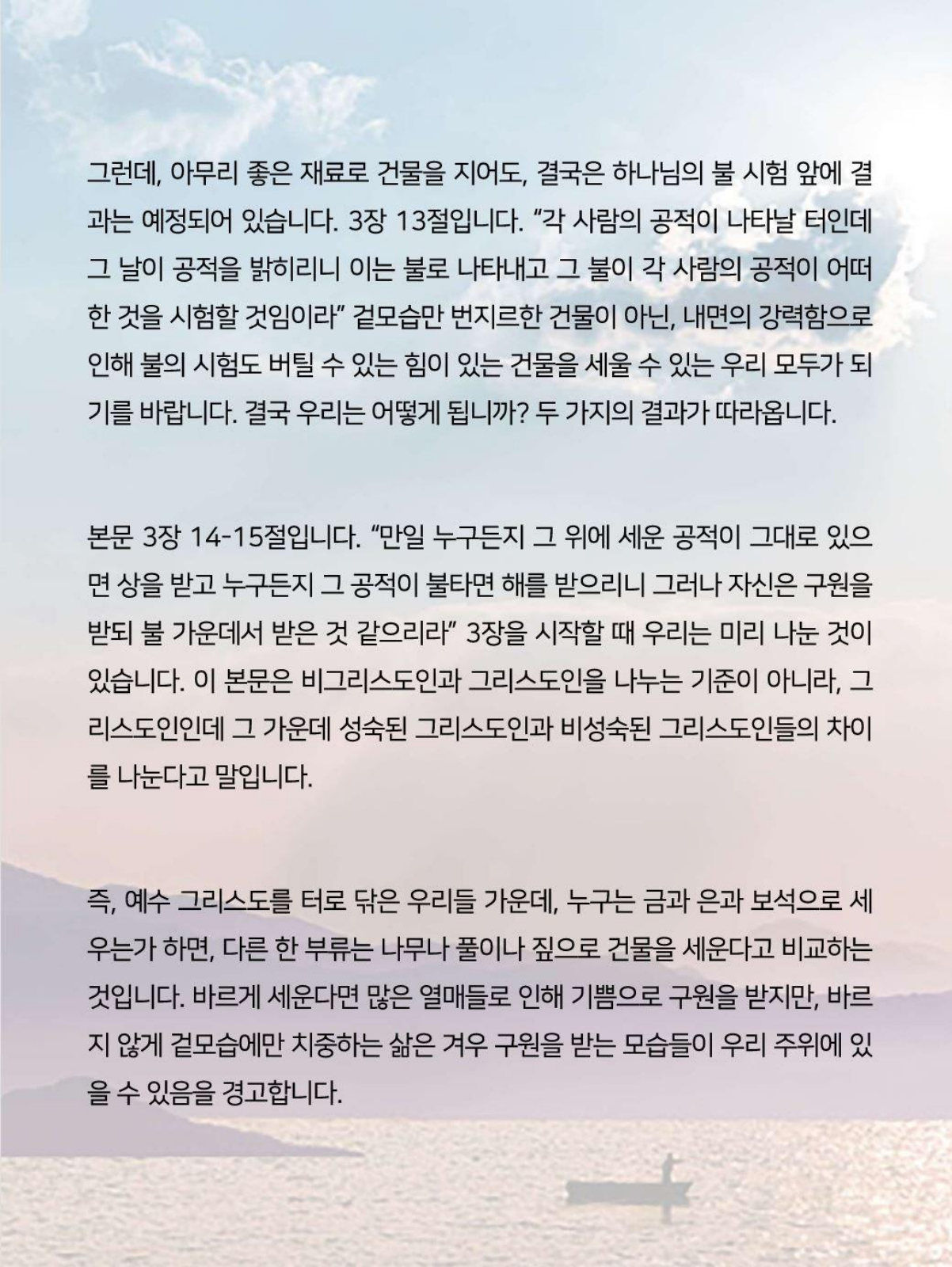
Q. 우리 주위에 영적인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런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 합니다.

나는 기초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본문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무언가를 세울 것에 큰 관심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세울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 터에 무엇을 둘지를 먼저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게 터를 닦아 두었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금새 사라질 것 같은 재료로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재료로 건물을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건물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 시험 앞에 결과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겉모습만 번지르한 건물이 아닌, 내면의 강력함으로 인해 불의 시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본문 3장 14-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3장을 시작할 때 우리는 미리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 가운데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비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나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닦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운다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세운다면 많은 열매들로 인해 기쁨으로 구원을 받지만, 바르지 않게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삶은 겨우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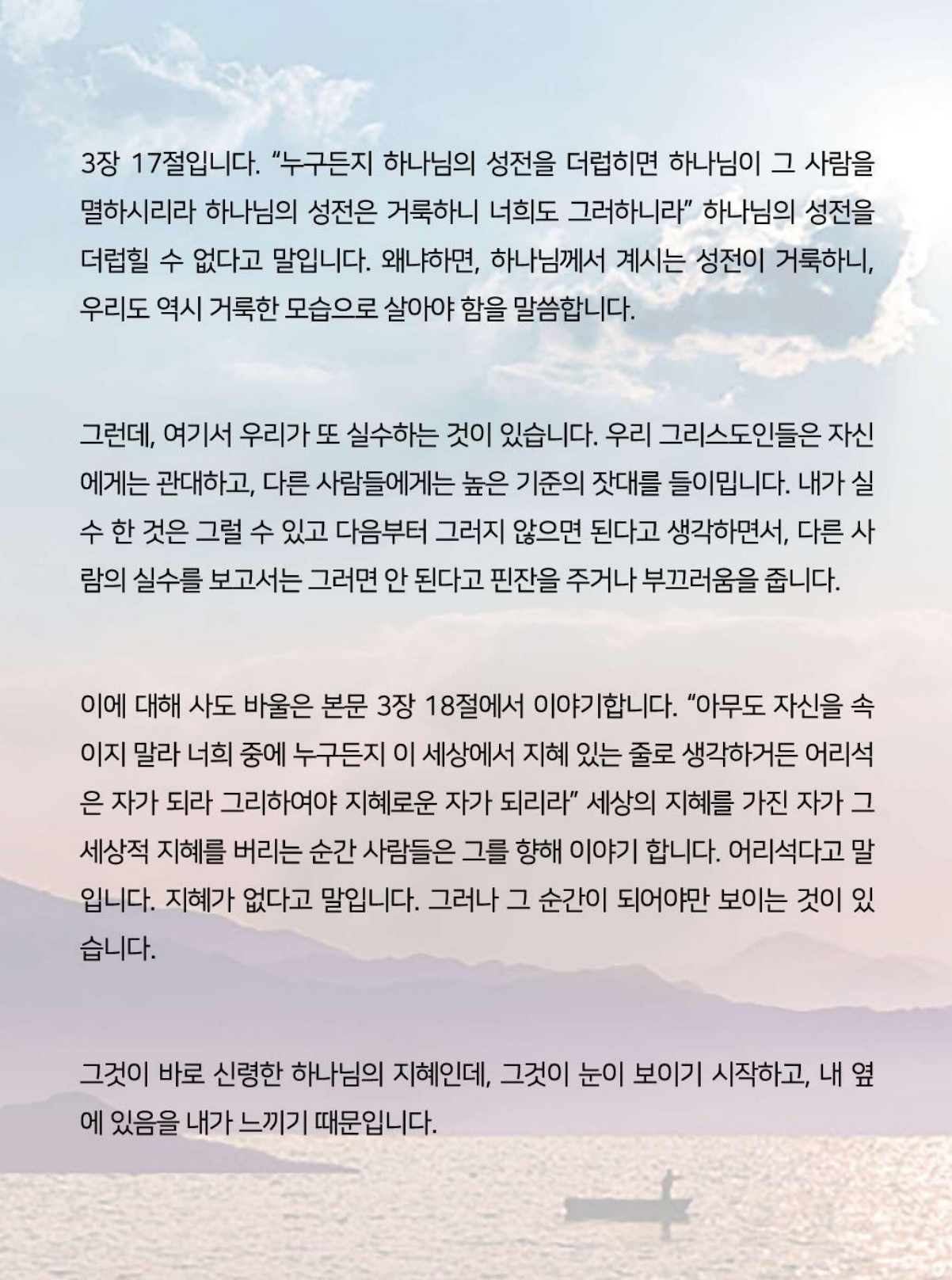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는 미래 설계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 혹은 결정인가?

Q.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금, 은, 보석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지금 그것들을 재료로 잘 세우고 있는가?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통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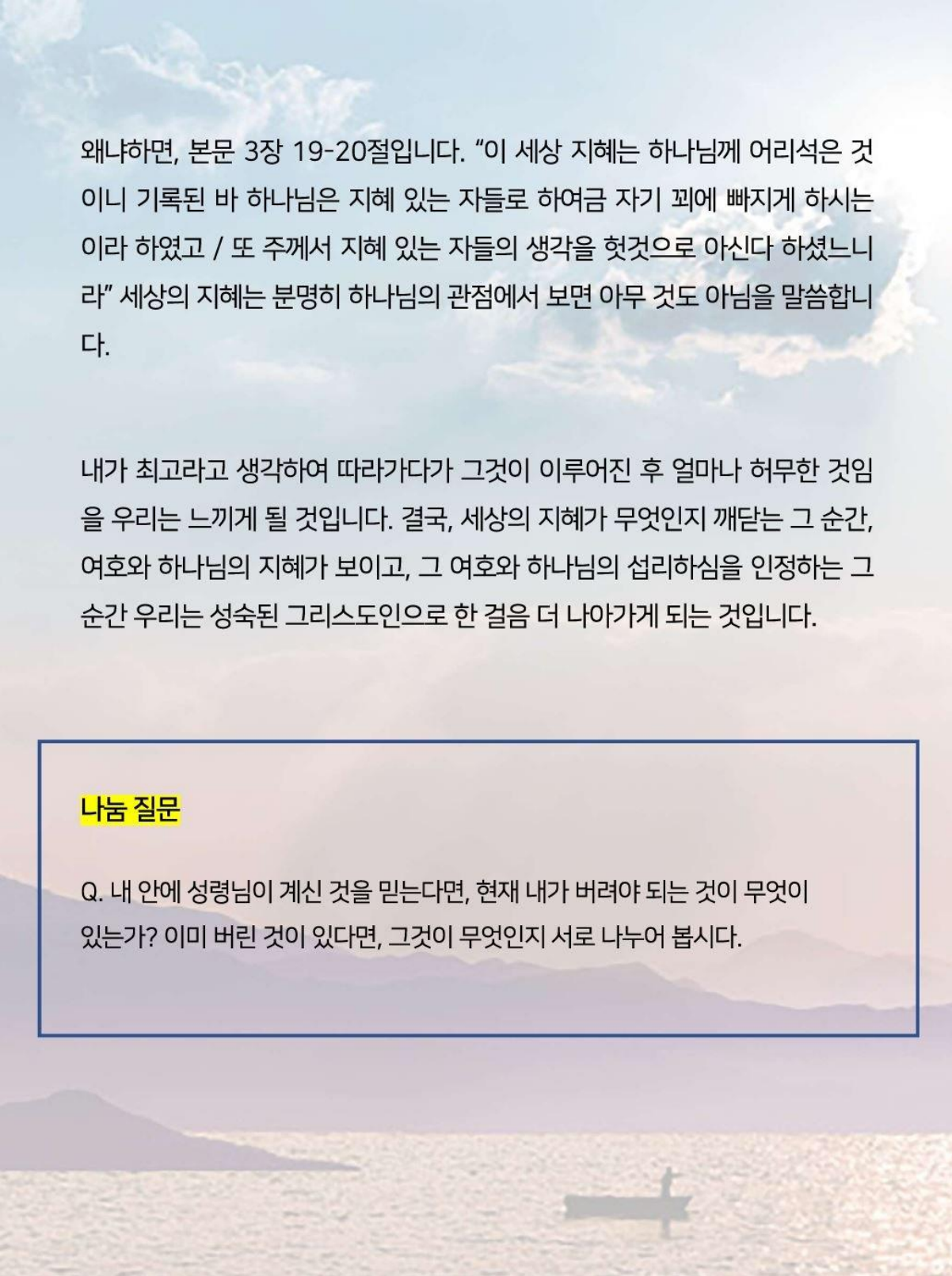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역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칩니다. 내가 실수 한 것은 그럴 수 있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핀잔을 주거나 부끄러움을 줍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3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세상적 지혜를 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이야기 합니다. 어리석다고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되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옆에 있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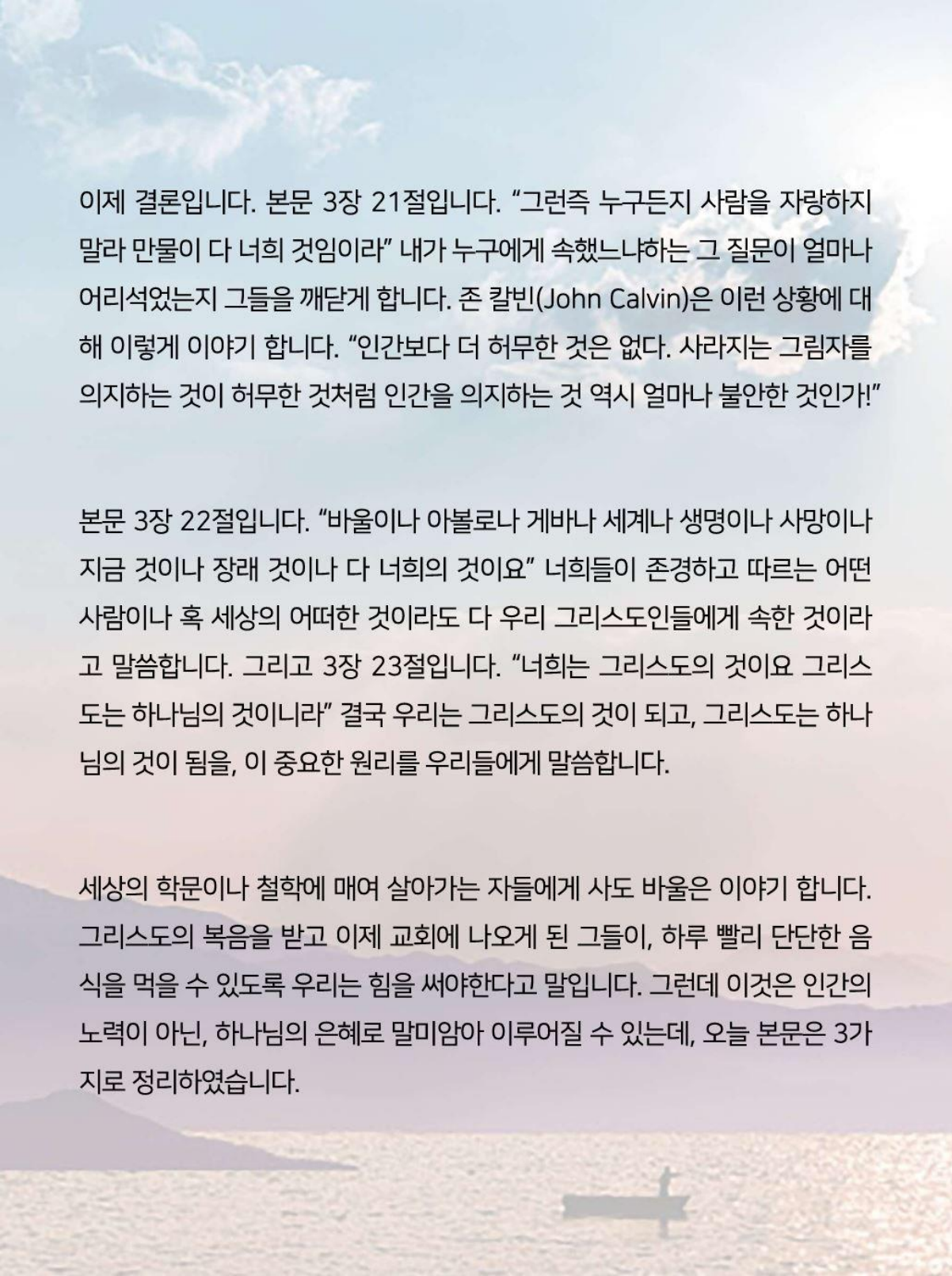


왜냐하면, 본문 3장 19-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따라가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후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Q.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현재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미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하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인간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다. 사라지는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 역시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본문 3장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사람이나 혹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됨을,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그들이, 하루 빨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동역자 칭함을 통한 사역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두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 바른 성전을 세우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 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줄 아는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